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11년도 당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당회원은 입교인 전원입니다.

오늘 1시 세미나실에서 인사구역회가 열립니다. 인사구역회원은 지방회원입니다.

: 12월 수요집회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손성현 전도사가 진행합니다.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로 금요일(16일) 오전 11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하반기 새교우환영회가 열립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후원의 밤 행사가 20일(화) 오후 4시와 7시에 세브란스병원 은명홀에서 열립니다.

내년에 교회 주방 설거지 봉사를 하실 분들은 1층 로비 서식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2주 남았습니다. 구세주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미리 선물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 당 봉 사 : 장혜숙 박성실 원인해 정경례 심상숙 이근식 최영혜
이선희 김신옥
12/18 식당 봉사 : 성가대 전원
오늘설거지봉사 : 조선환 강인숙 김정행 박시내
다음 주 설거지 : 이지훈 이정림 박권동 김근중 이종현
새 교 우 : 이춘재(3여) 황영준(5남) 김용훈(4남) 이원호(5남)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아부 | 10:50 | 유아부실 | 1부 예배 | 09:30 | 교육관 |
| 유치부 | 10:50 | 유치부실 | 2부 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3:30 | 교육관 |
| 중고등부 | 09:30 | 교육관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15(통55).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함께
-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값없이 새로운 호흡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잠깐 내리다 만 눈처럼, 한 해라는 시간이 아쉬움을 남긴 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순간순간에 휘돌리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참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한 사회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신뢰와 책임,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불신의 깊은 골짜기를 메워 주십시오. 구성원 각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하시며 마땅한 도리를 지켜가게 해 주십시오. 하여 모두가 안정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애3:21-23 인도자
- ♣ 교 독 문 117. 구주강림(3) 다함께
-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 대표기도 장영숙 전도사
- 응 답 송 찬양대
- 찬 양 104. 곧 오소서 임마누엘 다함께
- ♣ 성경봉독 I. 사 61:8-11 조지연 선생
 II. 요일 1:1-4 권 순 집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찬양대
- 말 씬 I. 나는 기다린다, 고로 존재한다 ... 손성현전도사
 II. 예수, 계시된 말씀 김기석 목사
- 거둬기도 다함께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장영숙 조병무 송양진 한완식 임정자 한상익 정영선 김성한 조영순
 김순복 김용길 최영혜 김일랑 이은옥 김중수 이순정 김동훈 유경순
 문복순 최현선 배삼순 권호진 백묘현 안정숙 안종일 정현주 이재문
 정한구 왕영순 한상경 홍순구 안홍숙 정연희 전희수 박숙영 조병역
 조정연 박찬덕 광새롬 무명

월정헌금:

김경수 권혁순 박해경 김명순 이교영 김문주 김미실 김영순 김종철
 고영애 김현주 박상규 서정순 이봉배 이성범 이수준 이수정 배재경
 이유선 방극숙 이인웅 오송경 정두리 조순덕 이민범 이윤석 박안수
 장동훈 주경진 이윤정 이지훈 문홍일 이미혜 LK

감사헌금:

이유일 김미희 홍성식 이유리 문홍일 이미혜 조항범 김준호 광혜자
 김순복 김중수 이순정 문복순 최현선 이우원 옥귀희 조연우 무명5

생일:

한완식 임정자

녹색꿈헌금:

장원호 박성희 한기택 현진실 임창선 조연우 무명

| | | | | |
|--|-------|-------|-------|------------------|
| | 장 해 숙 | 백 해 숙 | 오 송 경 | |
| | 노 순 옥 | 정 경 례 | 노 순 옥 | |
| | 임 정 자 | 최 경 미 | 이 소 순 | |
| | 문 영 혜 | 이 명 희 | 이 명 희 | |
| | 안 정 숙 | 진 정 숙 | 진 정 숙 | |
| | 박 홍 재 | 곽 권 희 | 김 순 복 | 연 합 속 회 |
| | 박 효 선 | 허 정 윤 | 홍 복 선 | |
| | 이 순 정 | 김 금 순 | 이 순 정 | |
| | 이 형 숙 | 권 미 숙 | 이 형 숙 | |
| | 안 홍 숙 | 오 현 정 | 안 홍 숙 | |
| | 정 영 선 | 이 현 숙 | 김 희 우 | |
| | 이 영 란 | 박 미 영 | 이 영 란 | |
| | 박 해 경 | 조 항 미 | 박 성 희 | |
| | 김 재 흥 | 오 자 영 | 교 회 | |
| | 김 기 석 | 이 근 식 | 교 회 | |

마음으로 읽는 글

아름다운 세상에 티끌 같은 나 하나

말 한마디 하기가 두렵습니다/ 글 한 줄 쓰기가 두렵습니다
겨울나무 가지 끝에 팔랑팔랑 소리날 듯/ 별들이 걸렸는데
어찌나 겨울하늘 아름다운지/ 걸음을 내딛기가 무섭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만나 그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이라 믿어
뒤돌아보지 않고 오랜 날을 왔습니다
강물도 언 살을 서로 섞은 채
어두운 곳을 저회끼리 몰려갑니다
저녁때는 물오리떼 작은 발도 씻어주고
손 흔드는 갈대풀과 소리치며 떠들기도 하더니
아무도 없는 곳을 묵묵히 감돌아 갑니다
외롭다 말 안하고 오래오래 젖어서 갑니다
우리도 작은 불 켜들고 자갈길 가다가
앞서간 사람들이 남긴 흔적 보며 분노합니다
여기저기 어두운 곳에 버려진 말들을 주워들고 흥분합니다
그러다 별발을 올려다보며 두려워집니다
나도 또한 바르게 사는지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가는 발자국 위에 길을 내며 따라오는
언제나 우리보다 더 울곤을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손끝이 시린 강바람 헤치며/ 뒤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가지만
아름다운 세상에 티끌 같은 나 하나 두렵습니다

- 도종환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 이성운 | 손성현 |
| 소속목사 : 김준우 | 한인철 | 양재성 |
| 한정애 | 원로장로 : 김성한 | 윤정덕 |
| 강인식 | 김철수 | 구성실 |
| 장로 : 조병무 | 한완식 | 윤석철 |
| 방문성 | 한상익 | 김인걸 |
| 지휘 : 윤주원 |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
| 김수진 | 김보라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 도서관장 : 박혜경 | | |

찬 양 449. 예수 따라가며 다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 말씀과 깊이 사귀십시오.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함께 : 아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나 편한 대로 말씀을 왜곡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해 만난 주님의 모습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말씀의 실천을 통해 주님과 사귀는 마음을 더욱 깊이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 당회 |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손성현 전도사 기도 : 김문주 집사 |

| 다음 주 예배위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 김재흥 목사 | 공동기도 | 최문희 선생 |
| | 김기석 목사 | 조병무 장로 | 한상경 집사 |

| 12월 | 영접위원 | 한상익 | 박창운 | 조관행 | 허정윤 | 임영선 | 서정순 |
|-----|------|-------------------------|-----|-----|-----|-----|-----|
| | 헌금위원 | 한완식 김금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 | | | |

소백산에 핀 꽃

소백산 골짜기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렸다. 마을 반장님네 딸이 태어난 것이다. 반장 김동규 씨는 이곳에서 태어난 본토박이다. 보발학교 졸업생이기도 하다. 팔순 넘은 모친을 모시고 고추와 콩 농사, 약초재배 등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산촌마을 농사꾼이다.

일찍이 선친이 일군 화전을 물려받아 농사도 짓고 탄광일도 했다. 도시에 나가 잡부도 했고, 그때 결혼하여 딸도 하나 두었다.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무렵 아내가 떠나버렸다.

그는 우리 공동체가 이곳에 자리를 잡았을 때 처음으로 만난 주민이다. 거짓이나 텃세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반장님’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속한 보발리 3통 반장을 맡고 있어서다. 친절함 김씨를 농사 고문으로 의지하며, 과중에서 수확까지 매번 물어가며 농사를 짓는다. 그는 우리가 못하는 쟁기질을 해주고, 우리는 그의 밭일을 도와 품앗이를 한다.

그에게는 서른 중반이 훨씬 넘은 노총각 동생이 있다. 함께 사는데 동생은 벌목하는 산판에 다니면서 일을 한다. 팔순의 노모가 장년의 두 아들을 돌봐야 하는 처지로 어렵게 살아가던 반장은 2년 전 중국 연변에서 아내를 맞았다. 이곳에서는 연변택으로 통하는데 그녀도 농촌에서 자라서 농사일을 잘한다. 우리가 품앗이를 하거나 집에 찾아가면 늘 밝은 얼굴로 친절하게 커피를 내온다.

낮선 땅, 그것도 깊은 골짜기에서 살게 되어 적적하기도 할 텐데 성품이 온순하고 낙천적이라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부부의 궁합이 틀니처럼 맞으니 하늘이 착한 이에게 내리신 축복이라 생각한다.

연변택이 출산할 때가 다가와 병원에 갔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다. 딸을 낳았다면서 이름을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소백산에 핀 꽃’이라는 의미로 ‘소화小花’라 이름 지어 봉투에 써넣고, 마을 가족이랑 할머니와 함께 제천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다.

갓난아기는 언제 봐도 경이롭고 평화로운 천사다. 이름을 지었노라고 봉투를 내놓으며, 아기가 나중에라도 가톨릭 세례를 받게 된다면 ‘소화 데레사’로 지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화 데레사. 반장님과 연변택은 이

름이 예쁘다고 좋아했다.

출생이란 선택이 불가능하고, 이름도 조국도 가문도 부모도 결정지어진 환경에 던져질 따름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공자님도 빈자의 텃밭에 태어나신 것을 보면 하느님의 축복이란 모두에게 공평함이 분명하다.

생명의 탄생이란 예삿일이 아니다. 경이로운 신비다. 착하게 살았으되 가진 것 없는 농부와 보다 풍요로운 꿈을 안고 국경을 넘어 시집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기. 평화롭게 잠든 소화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새근거리는 숨결을 들었다.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태어난 것을 감사해요. 나를 보아요. 엄마 아빠처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난 속에서 희망을 피워내고 있어요.”

하늘은 모든 생명을 숨결로 낸다. 창세기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숨을 쉬어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 예수의 숨결은 생명의 속삭임이 되어 별판의 목동들에게 전해졌다. 소화의 신비로운 숨결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이들과 다문화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한다.

시대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시대를 만든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기록해가고 있다. 서로가 필요했기에 외국인 이주자들이 왔다. 교황 요한 23세의 말처럼 “사람은 함께 사는 데 의미가 있다.” 이 땅에 사는 귀화 결혼자들은 대부분 ‘소화’의 부모처럼 힘없는 빈자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느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셨다. 착한 마음으로 맞이하여 서로 지지하면서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이 소중하고 빛나는 이유는 그것이 하느님의 축복이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온 소화네를 찾아가보려고 읍내의 농협 마트에 들렀다. 화장지와 분유를 집었는데 분유 값이 꽤 비싸다고 느껴졌다. 처음 사본 물건이라서 그럴 것이다. 혹시 몸에 좋지 않은 첨가물이 섞이지는 않았을까 방정맞은 생각도 들었다. 마음 놓고 먹일 것도 없는 세상에 태어난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소화에게 푸른 하늘과 숲, 청정한 공기와 물을 선물하고 싶다. 깨끗한 먹거리로 자라게 하고 싶다. 무엇보다 몇 년 후 소화가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무렵, 그 아버지가 졸업한 마을의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발분교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 박기호, 「산 위의 신부님」 중에서